

#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

### 무주군, 무주군체육회 등 30개 주요 기관·사회단체 쉐린지 동참

무주군 기관·사회단체들도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기원하는 쉐린지 'Go Beyond, Great Harmony(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 / 이하 GBCH 쉐린지)'에 동참했다.

무주군에서는 지난 1월 17일 황인홍 무주군수를 시작으로 무주군체육회와 무주군노인회, 무주군종합복지관 등 30개 주요 기관·사회단체가 참여하면서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힘을 실었다.

무주군체육회 송재호 회장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2036 하계올림픽이 전북에서 개최되기를 바라는 마음 정말 간절하다"면서 "2036 하계올림픽을 전북에서 유치하고 세계 태권도 성지 무주에서도 태권도를 비롯한 펜싱과 MTB경기 등이 개최된다면 정경자연과 어우러진 한국의 매력을 제대로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서는 지난해 12월 무주군 체육인들이 모여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1월 7일 태권도원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현장 실사에는 8백여 명의 군민이 동



무주군 기관·사회단체들도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기원하는 쉐린지 'Go Beyond, Great Harmony'에 동참했다. 사진은 무주군장애인체육회 쉐린지 동참 모습

참해 유치 기원 의지를 보여줬다.

또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당위성과 기대 효과 등이 담긴 영상을 지역 내 기관사회단체들과 공유하고 영원을 담은 현수막을 6개 읍면 곳곳에 내거는 등 분위기를 조성에도 주력해 왔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경기도 성남과 강원도 양구 등지를 찾아 올림픽 종목 단체인 대한펜싱협회와 대한태권도협

회 임원들을 만나 전북 유치의 장점을 설명하고 당위성을 호소하는 등 발로 뛰는 홍보를 거듭해왔다.

한편,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는 28일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에서 표결에 부쳐져 최종 결정될 예정으로 국내 후보지가 된 도시는 올림픽 유치를 신청한 세계 도시들과 경쟁하게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 반딧불 농·특산물 상품성 높이고 농가 부담은 줄인다

### 무주군, 포장재·택배비 지원

무주군이 농산물 유통망을 확충해 농가들의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반딧불 농·특산물 포장재 및 직거래(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올해 이 두 사업에 총 18억여 원(포장재 16억 2천만 원, 택배비 2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포장재 지원 품목은 사과와 복숭아, 포도, 토마토를 비롯한 일반농산물과 가공식품



류 등이며 오는 3월 7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지역농협, 무주과수영농조합에서 신청을 받는다. 택배비 지원은 무주군 지역 내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식품위생법에 의

거한 허가 기준을 득한 농산물 가공품 포함)을 택배를 이용해 판매하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택배 1건당 5천 원을 기준으로 배상비의 50%를 지원(5만 원~30만 원 한도)한다.

신청은 오는 4월 4일까지 신청서 등 필요 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를 갖춰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양수발전소 유치 본격 활동 시작

진안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위원장 구동수)는 27일 군청 강당에서 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5년도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1일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되면서, 올해 양수발전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이 제시된 것과 관련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지난해 활동 상황 점검과 올해 추진 계획과 성공 전략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

됐다. 진안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는 지난해 6월 발족된 이후 매달 회의를 개최하고 유치성공지역을 견학하며 주민 수용성 확보 및 진안만의 유치전략 수립에 노력해 왔다. 올해에도 지역주민들의 대표자로서 주민설명회 및 각종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민들의 확보를 가속화 해나가겠다"다. 구동수 위원장은 "지나해는 올해 유



치 성공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닦는 시기였고, 이제는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펼칠 시기"라며 "지역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성공을 이루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먼저 나서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적인 참여와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에 소재한 ㈜에코파나스가 '진안 홍삼 연구소'의 지원과 공동 연구 끝에 개발한 프리미엄 제품 '3배 진안 홍삼액'이 중국 시장에 첫발을 내디뎠다.

# 진안홍삼, 중국 시장 진출 쾌거

### 에코파나스, 진안 홍삼 연구소 지원·공동 연구 '3배 진안 홍삼액'

진안군에 소재한 ㈜에코파나스(대표 김성훈)가 '진안 홍삼 연구소'의 지원과 공동 연구 끝에 개발한 프리미엄 제품 '3배 진안 홍삼액'이 중국 시장에 첫발을 내디뎠다.

2월 약 2만 달러 규모의 1차 물량이 성공적으로 선적되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이번 수출은 '진안군 홍삼 한방 클러스터 사업단 (단장 김경배)' 및 '진안 홍삼 연구소'와 협력을 통해 사포닌 함량이 높고 피로회복에 탁월한 기능성 제품으로 개발된 '3배 진안 홍삼액'이 실제로 약 10개월간의 끈질긴 노력으로 진안군 최초로 중국 수출에 필요한 위생허가를 통과했다.

특히 전문 수출 컨설팅 회사인 (주)에스제이(대표 이병우)의 전략적 지원과 네트워크 형성이 성과의 주역으로 꼽힌다. 익산시 주얼리 집적센터에 위치한 (주)에스제이는 오랜 중국 시장의 경험으로 중국의 대형 유통 회사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번 성공도 중국 유통망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

진안군은 한국 최고의 인삼 재배지로, 오랜 전통과 뛰어난 품질로 홍삼 한방특구로서의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 불황의 여파로 내수 판매가 위축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면역력 강화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며 홍삼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증가, (주)에스제이와 ㈜에코파나스는 이를 기회로 삼아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섰다.

(주)에코파나스와 (주)에스제이는 진안 홍삼 연구소와 진안군 홍삼 한방 클러스터사업단과 협력해 품질 높은 제품 개발, 제조, 해외시장 진출이라는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고 긴밀히 협력해왔다.

이러한 협업 전략을 통해 중국 시장 진출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었으며, 앞으로도 중국 주요 도시에 협력 대리점을 확대해 연간 100억 원 수출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김성훈 대표는 "진안 홍삼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많은 소비자에게 면역력 강화와 피로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중국 시장에서의 성과를 시작으로 다양한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안군 홍삼한방 클러스터 사업단 김경배 단장은 "이번 중국 시장 진출은 한국 전통 홍삼의 우수성을 알리는 동시에 글로벌 건강 기능성 식품 시장에서 진안 홍삼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민생안정지원금 배부율 90% 넘어

진안군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하는 민생안정지원금이 신속하게 배부되며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지난 2월 19일부터 배부를 시작했으며 첫날에만 10,085명(약 41%)에게 지급되는 등 주민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진안군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2월 19일부터 26일까지 6일 동안 집중 지급 기간을 설정해 마을회관을 찾자 지급하는 행정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전체 지급 대상자의 90%가 넘는 주민들

이 수령할 수 있었다.

지원금은 2월 26일 기준 약 44억원이 지급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전통 시장과 소상공인 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월 31일까지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평일, 주말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소식통

### 장수군 천천면

## '태극기 휘날리며' 추진

장수군 천천면은 제106주년 삼일절(3·1절)을 앞두고 나라 사랑 마음을 되새기고자 28일까지 '관내 마을회관 태극기 점검 및 교체'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천천면은 '태극기 휘날리며' 추진을 통해 관내 마을회관의 태극기가 오염·훼손된 상태(새똥, 먼지, 찢어짐 등)로 방치되어 국가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면 직원들과 함께 현장 행정을 실시했다.

이현일 면장은 "공복 80주년을 기념하고 제106주년 3·1절을 맞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나라 사랑 정신을 계승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마을 방송 등을 통해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 무주군,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보건 교육 실시

무주군이 농번기를 앞두고 농작업 재해예방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2025년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4개 이톤 및 1개 실습)'을 진행 중으로 28일까지는 상반기 교육이, 7월 중에는 하반기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6개 읍면 12개 마을 농업인 4백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원광대학교 공공보건의료실 오경재 실장을 초빙해 농작업 중 발생하는 근골격계·심뇌혈관 질환의 이해 및 관리 예방법 등을 공유한다.

농작업 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농약 안전 사용법을 비롯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증상과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순목 보호대를 비롯한 농작업 안전 의자, 발토시, 방재복 등의 참여자 개인 보호구 사용 시범·실습 교육은 직접적인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군은 농업인들이 농작업 안전과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으로 지속적인 교육 추진과 작목별 연구회 등 농업인 단체를 통한 소통, 또 각종 홍보물을 활용한 관련 내용 공유에 주력할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